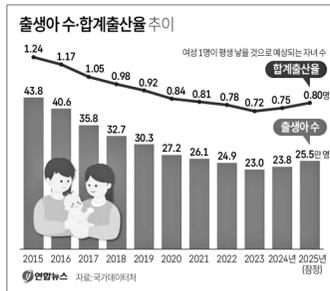


전남 합계출산율 1.10명 '1위'...전국 출생아 7% ↑

전국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전남이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 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합계출산율은 1.10명으로 2024년(1.03명)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중 영광은 합계출산율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장성(1.68명), 강진(1.64명), 함평(1.43명) 등 순이었다.

영광 1.79명 7년 연속 최고
전국 4년만에 0.8명대 회복
광주 증가율 8.8% 세번째
인구 자연감소 6년째 지속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457명으로 전년 대비 1만6140명(6.8%) 늘었다. 2024년(8289명, 3.6%)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은 2007년(10.0%) 이후 가장 높고, 증가 규모 기준은 2010년(2만5000명) 이후 최대다. 출생아는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이래 2023년까지 8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 35만7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로 주저앉아서 2023년엔 23만28명까지 내려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가 2024년 0.75명으로 처음 반등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는 혼인·주출산 연령 인구 증가, 출산 인식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증가했다. 역시 2010년(0.4명) 이후 최대 폭 증가다. 연령별 출산율(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20대 초반 이상에서 모두 늘었다. 30대 초반이 73.2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52.0명, 20대 후반이 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 33.2세, 둘째아 34.7세, 셋째아 35.8세였다. 각각 전년보다 0.1·0.2·0.3세 상승했다.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출생아 비중은 37.3%로 전년보다 1.4%p 늘었다. 결혼 생활 2년 미만 출생아 비율은 36.1%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2012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4년에 반등해 2년 연속 늘었다. 한국의 출생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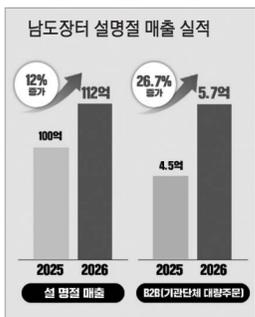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43명이었다. 바로 앞 순위인 스페인조차 1.12명으로,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8명으로 전년보다 0.8명 늘었다. 출생아 월별 비중을 보면 1월(9.5%)이 가장 높았고, 2월·6월·12월(7.9%)이 낮았다. 전체 인구는 작년 10만8900명 줄었다. 6년 연속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것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3400명으로 전년보다 4800명(1.3%) 늘었다. 연령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90세 이상(4800명), 70대(2000명)에서 늘었다. 남녀 모두 80대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60대 성비는 2.7배로 최대였다.
 원재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남도장터, 설 매출 112억...3년 연속 최고 실적

전년비 12억 늘어... 정부 공모 연계로 '물가 부담 완화'
수산·과일 판매 견인...라이브커머스 2억4000만원 성과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지난 설 명절 기획전에서 112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역대 설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3년 연속 최고 기록 경신이다. 전년 설 매출 100억원과 비교해 12억 원(12%) 늘어낸 수치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전남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설 매출은 수산물, 과일, 축산물, 가공식품 순으로 집계됐다. 명절 상차림과 선물 수요가 집중된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가 몰렸다. 할인 지원 정책과 품질 관리 강화가 맞물리면서 실적

구매 전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성과의 배경에는 내부 운영 체계 고도화가 자리하고 있다. 철저한 품질·입점업체 관리, 공동 마케팅 확대, 주문·정산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였다.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도 실적을 끌어올렸다. 전국 지자체 쇼핑몰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7억2000만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으로 1억원의 매출을 추가 확보했다. 공공 할인 재원을 활용해 전남산 농수산물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덜었다.



B2B 분야 성장도 눈에 띈다. 올해 설 기간·단체 주문 매출은 5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추산 4억5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26.7%) 증가했다.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해 대량 구매 수요를 흡수한

결과다. 디지털 마케팅 전략 역시 주효했다. 농·수·축산물 등 품목별 맞춤형으로 구성된 타겟형 라이브커머스를 집중 편성해 재구매율을 높였다. 설 기간 6회 방송으로 2억4000만원 매출을 기록하며 단일 채널에서도 존재감을 입증했다.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했다.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과 민물장이 어기를 지원하기 위해 수급 조절·소비 촉진 특별 기획전을 운영, 가격 안정과 판로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전라남도의 지원과 전략적 마케팅이 맞물려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정부 공모사업 유치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체감하는 공공 유통 모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잘나가는 전남산 농산물, 온라인 거래도 쑥쑥

작년 도매시장 거래액 692억...전년보다 24.2% ↑

친환경농업 1번지인 전남도 농산물이 인기를 끌며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은 692억 원을 기록해 전년(557억원)보다 24.2% 증가했다. 품목별 거래액을 살펴보면 쌀이 전체의 33.2%를 차지해 가장 많은 202억원을 기록했고, 양파(188억원), 방울토마토(148억원)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산 농산물이 온라인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거래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간·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주요 거래품목은 청과류, 양곡류, 축산물, 국산 가공품 등 202개 품목이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전남도는 생산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

시장을 통해 출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1000만원 이내에서 운임비의 70% (최대 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 산지유통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 컨설팅도 진행했다. 함평의 한 유통회사는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이 3.5% 상승하고, 유통비용은 7.4% 절감하고, 거래 수수료도 2.4% 감소하는 효과가 됐다. 전남도는 산지유통종합평가에 온라인 도매시장 실적이 반영(20%)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산지 직거래 확대와 유통 효율화가 실제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농가 소득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도농기원, 봄·가을 누에씨 접수 20일까지 모집...5월·8월 보급

전남도농업기술원이 2026년 봄·가을 누에씨 신청을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범월 사육기를 앞두고 도내 양잠 농가의 사육 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다. 관할 시·군 행정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품종은 '도담누에'와 '대황잠'이다. 도담누에는 춘·추 결을 강건성 품종으로 사육 성공률이 높고 생산성이 우수하다. 유충 단계에서 암수 구분이 비교적 쉬워 노동력 절감과 고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황잠은 황색 고치를 짓는 강건성 품종이다. 재종이 수월하고 유충 체중이 무거워 흉장, 동충하초 등 기능성 양잠 소재 생산에 활용도가 높다.

이번 신청은 2026년 추기와 2027년 춘기 사육 물량을 사전에 파악해 우량 누에씨 보급 규모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주요 예측을 통해 농가별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봄 누에씨는 5월, 가을 누에씨는 8월 중 보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농가 사육 계획과 지역별 수요에 따라 조정된다. 조자육 곤충잡업연구소장은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에 고치지 않고, 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학선 광주국세청장과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25일 광주경찰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능화되는 고액 체납자 단속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광주국세청·경찰청 "고의 체납자 단속 공조"

내달 국세체납관리단 출범 앞두고 징수인력 안전 모색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경찰청이 고의·악의적 체납자 단속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과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25일 광주경찰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능화되는 고액 체납자 단속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체납자 수색 등 강제징수 과정에서 징수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신설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과 다음달 출범을 앞둔 '국세체납관리단' 등 고액 체납자 단속을 위해 현장수색과 실태 확인 등에 나서는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들의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에 협조해준 광주경찰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 징수활동 과정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경찰관의 입

회나 신속한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 광주국세청과 긴밀히 소통해 발맞춰 나가겠다"며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와 반사회적 탈세행위자 대처를 위해 전북경찰청, 전남경찰청과도 빈틈없는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NH농협손보, 나주 봉황농협에 '위더스 상' 수여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은 25일 전남 나주 봉황농협에서 '위더스(With-us) 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위더스 상은 NH농협손해보험이 보험 사업 추진을 통해 농축산업 발전과 지역 사회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축협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상호 협력과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시상식은 서울총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 송정훈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총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농업 경영 환경 속에서도 농업인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주신 봉황농협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봉황농협과 같은 선도 농협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농업 현장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봉황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상 사업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축협을 신회 덕분에 이뤄낸 값진 성과다"며 "앞으로도 손해보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고,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봉황농협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은 지역 농축협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농업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은 25일 전남 나주 봉황농협에서 '위더스(With-us) 상' 수여식을 개최했다.